

“소소한 웃음이 모두의 즐거움으로”

제 45대 총학생회 **라운** 당선, 2023년 한국체대를 준비하다

기민정 기자 202071004@m365.ksnu.ac.kr

총학생회장 임기성

2000년 - 경기도 용인시 출생
2018년 - 충주 대원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2019년 -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 입학, 1학년 대표
2021년 - 대한민국 해병대 제2사단 청룡부대 병장 만기전역
2022년 - 한국체육대학교 제44대 총학생회 대외협력국장, 축제준비위원회 섭외협찬팀장
- 총장선거 대응 기자회견 임장문 발표
- 한국체육대학교 총동문회 사무국 간사, 기독동아리 릴레이 회장
- 한국체육대학교 지역사회 청소년 전문체육 진로 강사, KNSU 스포츠클럽 시범 레슨 보조 스텝

제45대 총학생회 선거 결과 임기성(사회체육 19) 총학생회장과 오승진(노인체육 19) 부총학생회장이 당선됐다. 11월 28일 진행된 부재자 사전투표와 12월 6일 본 선거를 거쳐 제45대 총학생회장단으로 기호 1번 ‘라운’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이번 선거에는 두 팀의 총학생회장단 후보가 출마해 경합을 벌였다. 경선(둘 이상의 후보가 경쟁하는 선거)으로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는 41대 ‘희열’ 총학생회 이후 4년 만이다. 후보자 검증에 위한 두 차례의 공청회와 11월 16일부터 시작된 약 3주간의 선거운동 끝에 개표는 본선거 당일인 12월 6일 진행됐다.

투표에는 총 2,282명의 선거권자(선거가 치러지는 해당 학기에 등록된 학부 재학생) 가운데 1,037명이 참여해 총 45.44%라는 참여율을 보였다.

해당 수치는 지난 8월 개정된 ‘한국체육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제31조 3항에 의거, 당선인 결정을 위한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라는 조건을 충족한다. (269호 2면 참고) 개표를 위해서는 선거권자 2,282명의 3분의 1인 약 760명, 33% 이상의 투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준치 이상을 충족한 것이다. 때문에, 연장투표나 궐위(어떤 직위나 관직 따위가 비는 것) 없이 계획대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곧바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호 1번 ‘라운’ 총학생회가 득표수 528표, 50.9%라는 득표율로 기호 2번 후보자를 23표라는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제45대 총학생회 자리를 이어받게 됐다.

라운, ‘즐거운’의 순우리말이다. 웃음으로 가득한 2023년의 한국체대, 그리고 학생자치를 이끌어 갈 제45대 ‘라운’ 총학생회의 임기성 총학생회장(이하 임), 오승진 부총학생회장(이하 오)을 만나 인터뷰를 나눠봤다.

Q.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임: 굉장히 기쁩니다. 많은 학우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투표해주신 덕분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편으로 부담감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담감에 짓눌리지 않고 학우 여러분들이 만족스러워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만 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은 학우분들이 투표해주셨고 그에 대한 책임감, 느끼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학우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총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호 2번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받은 저희를 지지하지만, 받은 지지하지 않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서 저희에 대해 모두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화할 수 있게끔, 만족할 수 있게끔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출마 계기가 궁금합니다.

라운의
선거공약

문화

- 사회문화교류 사업
- 교내 문화교류 멘토멘티 사업
- 다양한 스포츠 대회 개최
- 교내 플리마켓 실시
- 과잠 혁신 사업

복지

- 제휴 업체 반영 및 확대
- 대여사업 물품 및 운영시간 확대
- 예비군 훈련 복지 개선
- 주차권 제도 개편 및 주차관리위원회 학생 참여 요구
- 평생교육원 재학생 감소로 할인율 증가 건의

시설

- 천마생활관 내 인터넷 환경 개선 요구
- 학생 복지 공간 증대
- 하겐 불편 시설 전면개선 및 구급품을 통한 상시 조사
- 캠퍼스 내 시설 디자인 공모전 개최

소통

- SNS 월별 사업 예고 및 보고
- 정기 총장간담회 진행
- 교내 사업 및 장학금 제도 정보 홍보
- 총학생회 건의 게시판 설치

교육

- 조기졸업 제도 요구
- 학점이월제 요구
- 열람실 개방 시간 확대 요구

권리

- 휴연 문제 개선 요구
- 인권센터 활성화 및 인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정례화

학생지치

- 감사위원회 체
- 시설안전국 개설
- 학생회 활동 증명서 발급

취업

- 체바시(체대를 바꾸는 시간 15분)
- 취업 지원 서비스 제휴



부총학생회장 오승진

2000년 - 대전광역시 출생
2017년 - 대전반석고 학생회 체육부장
2019년 -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입학
-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1학년 대표
-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복지관 파견
2021년 -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제 11공수여단 황금박쥐부대 병장 만기전역
2022년 - 한국체육대학교 배드민턴 동아리 매치포인트 회장
-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노인운동사업 운동 강사
- 전국 배드민턴 동아리연합회 홍보단 ‘누리어셈블’ 활동

Q.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로 선출된 문원재 교수도 정기 총장간담회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정기 총장간담회’ 공약, 실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소통 창구를 만들어나갈 계획이신가요?

임: 정기 총장간담회의 경우, 분기별로 1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개강 전 학교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문제점들을 미리 체크하는 1회, 종강 후 학기가 끝나고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해 피드백하는 1회, 이렇게 1학기, 2학기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설이나 제도적인 부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것들, 소소하게 에브리타임에 올라올 수 있는 의견과 문제들을 구글폼이나 설문지를 통해 최대한 많이 수렴하고 총장간담회 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조기졸업제도’나 ‘학점이월제’ 공약 실현 가능한지, 1년이라는 임기 기간 내에 이룰 수 있는 공약인지 궁금합니다.

임: 조기졸업제도나 학점이월제의 경우, 이미 타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수업학적팀에 문의했을 때, “타 학교에서 하는 사례를 우리 학교에서 못 할 이유가 없다. 충분히 건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해당 부분들에 대해 논의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하려면 많은 학칙과 방식들이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사실 1년이라는 기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서 단기적으로는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고 실현해나가고 싶습니다.

오: 당장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건 불가능하지만, 변화가 일어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3, 4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 제도에 포함이 안 되겠지만, 1, 2학년 또는 신입생들은 지금 기반을 다져놓음으로써 1, 2년 후에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타 대학 사례들을 토대로, 우리 학교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선별해서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학생들에게 어떤 총학생회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오: 시간이 지나서 ‘라운’이라는 이름을 보거나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좋은 기억,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고 싶어요. ‘아이 총학생회 잘했지’, ‘그 때 재밌었는데’ 이렇게요.

Q. 포부 그리고 각오

임&오: “소소한 웃음이 모두의 즐거움으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소소하게 웃게 해드리고, ‘즐겁다’, ‘재밌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 알찬 사업, 재밌는 사업 준비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결과로써 증명하는, 노력하는 총학생회 그리고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 올해 ‘위드유’ 총학생회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활동하면서, 제가 한 활동이 학교 그리고 학우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활동하는 것 자체도 재밌었고요. 그래서 제가 구상했던 사업을 보다 크고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내년에도 이어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 처음 총학생회장이 같이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 대학교 재학 중에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이 아니면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

랑 하면 믿고 같이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가장 컸어요. 목소리를 내야 할 부분에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좋은 자리이기도 하고, 기회라고 생각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Q. 임기 기간 내 꼭 실현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임: 총학생회 이름이 ‘라운(즐거운)’인 만큼, 학교생활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문화교류 사업, 교내 문화 교류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문화 관련 사업을 통해 학우 여러분들이 어울리면서 조화를 이루

는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사실 스포츠와 학대학, 스포츠문화예술대학, 생활체육대학이 각자 나누어서 따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문화 관련 공약을 통한 화합으로 아름다운 그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오: 저는 휴연 문제 개선 공약이 이번 임기 동안에 할 수 있고, 임기 안에 꼭 실현하고 싶은 공약입니다. 휴연자 입장에서의 공간 필요뿐만 아니라, 제가 비휴연자인데 낯새나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런 걸 확실하게 잡아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